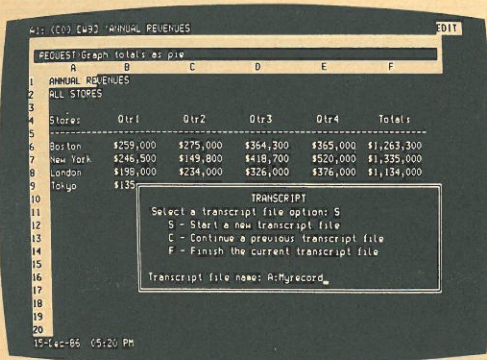


유틸리티 정보

LOTUS 1-2-3을 자동처리 HAL



Stores	Qtr1	Qtr2	Qtr3	Qtr4	Totals
Boston	\$259,000	\$275,000	\$364,300	\$365,000	\$1,263,300
New York	\$246,500	\$149,800	\$418,700	\$520,000	\$1,335,000
London	\$159,000	\$234,000	\$326,000	\$376,000	\$1,134,000
Tokyo	\$135,000				

▲ 화면 위에 나타난 HAL의 명령어 박스
16비트 IBM 호환기종에 사용

지금까지 Lotus 1-2-3와 같이 작업하면서 1-2-3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유틸리티는 많이 나왔다.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으로 512K의 RAM과 2대의 디스크 드라이브가 필요한 HAL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의 하나.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름이 그리 알려지지 않은 GNP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Lotus 1-2-3 명령어를 쉽고 간단한 영어 명령어로 가능케 하는 HAL이란 소프트웨어를 선보였다. Lotus 사는 이 소프트웨

어에 감명을 받고 GNP사를 사들였으며, HAL의 개발자를 고문으로 앉히고 시장판매를 1년 가까이 보류해왔다. 그동안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HAL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1-2-3 고유의 내부 작업으로 가능하도록 이식작업을 해왔다. 그결과 처음 선보였을 때보다 더 빠르게 실행되고, RAM영역도 덜 차지하는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이 되어 시장에 소개되었다.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많이 있으나 다른 Lotus 1-2-3 보조 소프트웨어 보다 사용이 쉽고, 강력하다는 것이 최강점. 예를들어 슬래쉬 키(/)하나로 1-2-3 명령어 메뉴들을 액세스 한다든가, 백 스페이스 키로 HAL의 명령어 박스를 작업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는 점 등이다. 또 어떤 한 칼럼의 합계를 구할 때 커서를 그 칼럼의 밑에 있는 셀로 옮겨 공식을 작성하고, 범위를 지정하고 했었는데 단지 "Tot Col"이나 "Sum Col E"를 명령어 박스에서 타이프하면 해결되도록 하였다.

1-2-3 사용자들에게 또다른 큰 잇점이 되는 것이 스프레드시트를 링크하는 능력. 각 쉬트를 메모리 속으로 로드하여 "Link Z100 to Cell QB7 in Sales"라는 요구를 타이프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된다. 그 밖에도 포맷팅이나 스크린 상의 헬프 기능도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강력하다는 평.



소프트빌리지 영동점 개장

8비트 PC 유저를 위한 종합 전문점이 영동에 문을 열었다.

12월 초 영동 지역 유저들을 위해 마련된 소프트빌리지 영동점(대표 정 승수)은 S/W와 소모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점이다.

소프트빌리지를 지역별 체인점으로 연결하려는 꿈을 갖고 있는 정 승수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 소프트웨어점과는 다른, 정말 PC 유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점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최대한의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영동지역 유저를 위해 개장된 소프트빌리지 영동점. 소모품과 S/W를 주로 취급하며, H/W 판매도 하고 있다.

여의도 소프트빌리지와 마찬가지로 영동점에서도 직접 판매와 함께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에게는 관련제품 및 S/W를 저렴(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또 교육용이나 고가의 S/W를 실비로 대여해 준다.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회원은 가입비 5천원에 연회비 1만 5천원, 특별회원은 연회비가 3만 5천원이다. 소프트웨어 1개당 대여비는 1천원이며, 1개월 동안 빌려 사용할 수 있다.

문의처는 ☎ 540-1621이다.

35트랙 FDD는 40트랙 S/W 못 읽어

상점에서는 잘되던 소프트웨어가 집에 오면 부트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FDD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FDD 구입시 주의를 요한다.

Apple 컴퓨터는 DOS에서의 미흡한 점만 없다면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한 DOS를 알기 전에는, 디스크드라이브에 기계적인 고장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부주의나 프로그램 및 디스켓상의 잘못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하게 된다.

초기의 애플 드라이브는 DOS 3.1, 3.2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35트랙 이후의 데이터는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 그것은 디스크 드라이브의 기계적인 구조 때문이다.

초기의 드라이브 구동방식(Belt Drive)의 단점은 Read와 Write 작동시 요란한 잡음으로 사용자에게 디스켓이나 드라이브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주었다. 사실, 드라이브의 소음은 메카니즘의 수명을 조금은 단축시키기도 한다. 그 소음은 0트랙을 찾기 위해 반복작업을 하다가 나는 소리로 Stepping Motor (TEAC의 초기 방식)의 Step 제어에서 나는 소리이다.

후기의 Direct Drive 방식(슬림형)은 NT-8306에 의한 0트랙 자동 복귀 방식을 채택하여 기계적 불완전음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방식인 CHINON 메카니즘은 초기의 TEAC 메카니즘의 가벼움과 떨림을 방지,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Analog 및 Digital Board의 커스텀 IC의 채택이다. 40트랙과 35트랙의 문제점의 대부분이 커스텀 IC의 불완전에서(커스텀 IC를 분해하여 쓴 경우) 생긴다.

이제 드라이브도 국산화 체제에 돌입, 초기의 수입

조립의 단계를 벗어나 국내개발에 성공하였다. 대표적인 회사가 금성인데, 아직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 그 이유는 Read와 Write가 불안하고 0트랙 복구에 문제점이 있어 소음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중(세운상가)에서 금성 메카니즘에 가짜 상호를 붙여 판매하는 곳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금성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 J산업의 경우 H/W는 좋으나 드라이브가 미흡하여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외 표준 포맷(40트랙)을 갖추고 있는 드라이브는 Asuka, Newtech(old version), Exim 6502(old version) 등이다. 그러나 국내 제품은 Newtech II 외에는 정확한 포맷과 0트랙 복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입시 40트랙용 S/W로(오토듀얼, 울티마 등)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다.

SPC-1500 등장한다

삼성전자에서 8비트 PC의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미 소문은 나있던 내용이지만 SSM 정기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SPC-1500은 샤프 MZ 시리즈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SPC-1000과의 호환성 결여 때문에 아직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X 메가롬 소식

일본에서는 기존 롬의 4배 이상의 능력을 가진 메가롬이 등장하였다. 여기에는 아스키, 코나미, 소니 등 굴지의 S/W회사가 다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S/W의 대부분이 메가롬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추이에 따라 국내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일본의 메가롬을 들여와 컨버전시키려 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메가롬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토피아의 경우 VIP 회원에게 대여비를 받고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빌릴 수 있는 것은 그라디우스, 킹나이트, 꿈의 대륙 등 3종류 뿐으로 대여비 3천원을 내야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한편 토피아의 VIP 회원이 되려면 가입비 5천원 외에 월회비 5천원을 매달 지급해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빌릴 때엔 다시 대여비를 내야 한다.

PC 유저를 위한 종합 정보지 **컴퓨터왕**